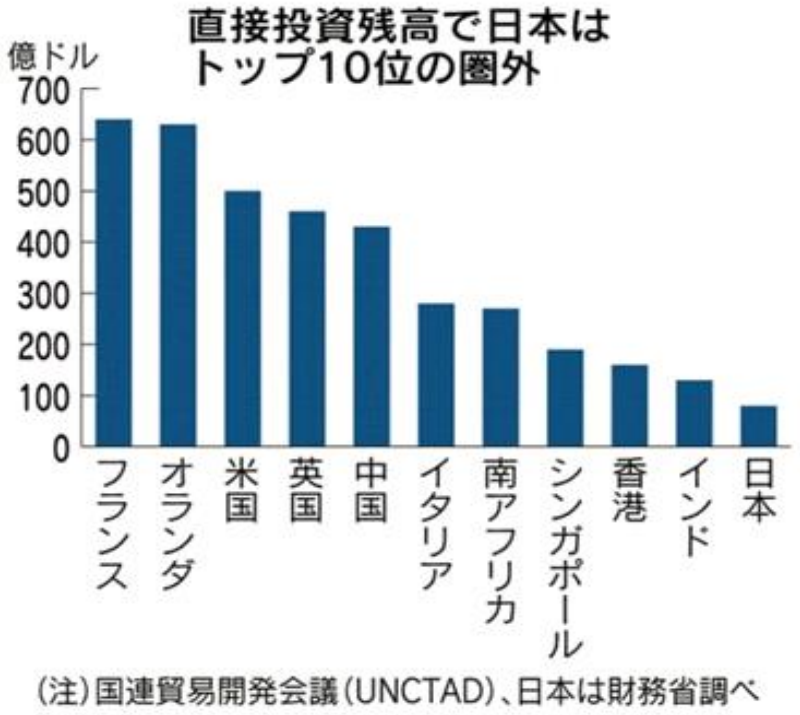
꼭지명 : 월요 철강 시황 리포트 (6) (19.9.2)

1. 주간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일본의 TICAD7 회의를 보면서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 철강재…중국산 오퍼가 약세 지속, 국내 시장도 전반적으로 약세
열연 일부 오퍼 'Skip' 등 국면 전환 움직임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동부제철 KG동부제철로 9월2일부 출범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 철강업계 임원 평균 56세…영흥 동국 'Young'한 기업
5. 금주의 자료 : 사람이 혁신의 원천이다 - 사람 기반 혁신의 5가지 방식 (출처 : 포스코경영연구원, 19. 8. 14)
홍콩 시위 장기화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 (출처 : 한국무역협회 연구보고서, 19. 8. 27)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19.8.27)
6. 철강과 인문학(4) : 철의 제국 '히타이트'…신(神)의 소재에서 인간(人間)의 철(鐵)로

1. 주간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일본의 TICAD7 회의를 보면서

지난주 28~30일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제 7회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7)가 열렸다.

일본 주도로 열리는 이 회의에는 아프리카 각국 정상(54개국 중 42개국)들은 물론 일본 아베 총리까지 참가해 그 열기를 더했다. 아베 총리는 폐회식에서 "민간 기업의 아프리카에서의 새로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적 차원에서 아프리카 국가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향후 6년간 3천명의 산업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 지원책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미 28일 기조연설에서 향후 3년간 200억달러를 넘는 민간 투자의 실현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출처 : 요미우리신문)

일본은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2000년부터 중국아프리카협력 포럼을 총 7차례 열었고 2018년 회의에서는 3년간 약 600억 달러의 투자, 지원계획을 전한 바 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아프리카 직접투자 총액에서 중국은 5위인 430억달러인 반면, 일본은 11위인 90억달러(2018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기업 차원의 FDI뿐만 아니라 ODA 등 공공 차원의 지원과 투자를 통한 우군 확보와 영향력 확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해 향후 3년간 34억달러 규모의 엔화 차관을 출연키로 했다. 또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역시 향후 3년간 45억달러의 대출을 통해 도로, 다리 등 인프라와 풍력 지열 발전 등 에너지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은 30일 폐회식에서 채택한 '요코하마 선언'에서 드러난다. 요코하마 선언은 일본의 '2016 인도태평양 구상'의 일환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 경제적 연계를 일본 주도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전략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사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확대를 염두에 두고 유엔 여러 조직의 개혁을 결의하는 제스처도 취했다.

최근 포스코경영연구원 보고서는 아프리카가 인구 12억 명에 2조5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높은 경제 및 소비시장 성장으로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찍부터 아프리카에 진출한 일본은 자원개발에서 자동차, 철강, 일반 소비재 판매 등 아프리카 진출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프리카의 중요성은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보호무역으로 수출 시장을 잃어가고 있는 세계 각 국에 있어 무엇보다 새로운 시장으로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과거 정치, 경제적 리스크가 높았던 아프리카는 풍부한 광물자원이 거의 유일한 진출 이유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중국의 아프리카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유럽, 인도 등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일본은 새로운 전략으로 아프리카 진출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투자와 무역규모 면에서 중국과 인도 등에 뒤졌다는 판단 하에 이왕에 아프리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과 제휴 및 인수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자원개발과 플랜트 조직자(Organizer) 중심에서 금융, IT, 쇼핑센터 운영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빠른 아프리카 시장 확보 배경에는 사실 1960~70년대부터 자원분야 중심으로 진출해 왔던 경험과 거점 확보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아프리카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높은 현지 정보수집 능력과 현지화 역시 순조로운 사업 확장에 기여했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경우 중국의 아프리카시장 영향력 강화에 맞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증액과 기술이전 등을 통해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해주고 있다.

주요 일본 기업들의 진출 역시 상당 기간 전략적인 검토와 지점 개설 등 거점 확보가 주효했다고 판단된다. 철강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마루베니의 경우 철강 계열사를 활용해 철강재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제철과 이미 2008년 남아공에 연간 가공능력 15만톤의 냉연 스틸서비스센터를, 2010년에는 나이지리아에 역시 비슷한 규모의 냉연 스틸서비스센터를 설립했다. JFE스틸과는 2016년 이집트의 냉연 표면처리 업체인 Kandil Steel의 주식을 공동 인수해 북아프리카 철강시장을 공략 중이다.

아프리카 시장규모 확대와 사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해 과거 자원개발 중심에서 제조업 및 시장 확대로 전략적 변화를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 'TICAD7'을 보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구촌 최후의 거대시장인 아프리카 확보를 위해 정치 경제적 전략 수립과 실행에 힘쓰고 있는 일본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특히 정치권과 정부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은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다. 몇몇 민간 기업들의 진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과거에 얽매여 미래지향적 전략 수립과 실행을 등한히 하는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부품소재 '극일(克日)'을 달성해도 시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물량을 앞세운 중국, 명분과 전략 실리로 무장한 일본이 정치권과 기업들이 협력해 미래를 위해 뛰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답답함을 넘어 괴로운 심정이다.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철스크랩…약세 조정 당분간 지속, 국내 가격도 하락전환 가능성 커
철광석…중국 감산으로 하락 지속 전망
쇳물원가…3분기 올 최고 수준 기록 후 점진적 하락 전망
철강재…중국산 오퍼가 약세 지속, 국내 시장도 전반적으로 약세
열연 일부 오퍼 'Skip' 등 국면 전환 움직임
중국 주간 시황…하락 지속 저점 도달 의견, 재고 감소 속 마진 회복을 위한 감산 움직임

(시황 변동 요인 및 이슈 분석)

◆ 철스크랩 : 약세 조정 당분간 지속, 국내 가격도 하락전환 가능성 커

1. 글로벌 철스크랩 가격 추가하락 : 약세조정 당분간 지속

GLOBAL WEEKLY SCRAP WRAP

	Price today ($)	Price last week ($)	Value change week on week
Steel scrap HMS 1&2 (80:20 mix) North Europe origin, cfr Turkey, $/tonne	262.51	274.14	▼11.63
Steel scrap HMS 1&2 (80:20 mix) US origin, cfrTurkey, $/tonne	269.61	281.32	▼11.71
Steel scrap HMS 1&2 (80:20 mix) export, fob main port UK, $/tonne	252.00	261.50	▼9.50
Steel scrap HMS 1&2 (80:20), export index, fob New York, $/tonne	246.25	269.00	▼22.75
Steel scrap HMS 1&2 (80:20 mix) US material import, cfr main port Taiwan, $/tonne	259.00	268.50	▼9.50
Steel scrap, shredded, index, import, cfr Nhava Sheva, India, $/tonne	291.20	292.71	▼1.51
Steel scrap, shredded, import, cfr delivered Turkish port, $/tonne	275.00	280.00	▼5.00
Steel scrap HMS 1&2 (80:20), cfr Vietnam, $/tonne	301.50	307.50	▼6.00

All prices and values in US dollars ($) Source: Fastmarkets

2. 근거리 시장의 3가지 방향
▲일본 내수 약화 ▲동남아 견인 ▲ 한국의 관망(보수적 접근)
- 동남아 밀은 6-7월 구매견인 : 일본 내수 하락 속도 제어
- 한국은 여름철 대보수 구매감소
→ 일본 내수는 약세, 수출은 강보합 이원화
→ 일본 고철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베트남에서 6-7월 재고 확보 경쟁으로 하락장 방어

3. 일본 가격 하락 조정국면 지속
- 철강재 가격불안, 저가 빌릿 출현 → 고철시장 8월 약세기조 급전환
- 8월 마지막 주 현대제철은 H2 2만7000엔에 대량 성약(10만톤 추정)

- 현대제철 등 한국은 관망세에서 8월 마지막 주 재고확보를 위해 구매에 관심을 높이기 시작.
- 관서지방은 일본 H2 및 신다찌(생철) 한국에 판매 집중. 약세원인. 2만7000엔 수용

→ 결론 : 일본 내수시장 약세장 지속 및 반등세 전망은 불확실

4. 미국 대형고철
- 7월 터키 제품시장 부진. 철근 460달러. 마진확보 어려움. 270.00/MT 미동부-터키 성약
- 터키 밀의 현재 구매희망 가격은 HMS No.1&2(8:2) 255~265달러.
- 최근 1개월 하락폭 30달러. 하락속도가 빠르다는 평가

→ 바닥 도달 의견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

5. 현대제철 러시아 철스크랩 계약 : 수입산 확보→국내 가격인하 관측
- 현대제철은 일본산 계약과 함께 러시아산 A3를 293달러(CFR)에 계약함
- 현대제철 최근 1개월 수입산 하역은 20~25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수입재고가 확보되고 나면 국내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

* 8월말까지 (제강사에 따라 인센티브 실시) 국내 입고량은 원활했던 것으로 평가. 9월 물동량이 줄더라도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음

◆ 철광석 : 중국 감산으로 하락 지속 전망

1. 철광석 가격 8월 29.2%(35.0달러) 급락
- 철광석 Fe 62% 30일 기준 85달러 기록, 한 달 새 29.2% 하락
- 전주마감(23일) 대비 4.5% 하락 : 약세 지속

2. 하락원인

1) 중국의 수요 감소
조강생산량 5월 8909만톤 정점 6월 8753만톤 7월 8522만톤

2) 중국 여름철 비수기 철강재 수요 감소
재고증가 : 철근 유통재고 6월7일 775만톤서 8월9일 924만톤까지 (마이스틸 집계)

<품목별 유통 재고 증가>

※ 기간 : 6/7~8/9

- 철근 : 775만톤 ~ 924만톤
- 열연 : 209만톤 ~ 261만톤
- 선재 : 122만톤 ~ 174만톤
  * 23일 179만톤까지 증가
- 중후판 : 103만톤 ~ 109만톤

3. 방향성 : 안정화

1) 추가 하락 요인 : 중국의 감산
- 당산시 9월부터 10월4일까지 발표, 30% 규모 감산, 대상 16개 제철소 제외
- 겨울철 감산 10월 중순~말 주요도시 전국적 실시
- 철강재 가격 약세 전망, 중국의 철강수요 둔화

2) 하락 방어 요인
- 중국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측
- 올해 겨울철 감산은 작년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
- 수입산 철광석 재고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철광석 가격 급락 이후, 광산기업의 추가하락 방어

→ 45개 항구 8월말 재고 1억2100만톤, 작년 8월 1억5400만톤

→ BHP 등 이익중심의 가격정책으로 생산 및 공급량 조절

◆ 쇳물원가 : 3분기 올 최고 수준 기록 후 점진적 하락 전망

1. 8월 쇳물원가 18.1%(62.2달러) 급락
- 8월 쇳물원가 평균 281달러 7월 343달러서 급락 전환
- 철광석(Fe 62%) 8월 평균 90.8달러 7월 대비 23.8%(28.4달러) 하락
- 원료탄(강점결탄) 8월 평균 168.3달러 7월 대비 10.9%(20.6달러) 하락
* 쇳물원가는 중국의 철광석 원료탄 스폿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배합비만은 고려.

2. 고로 3분기 원가는 올해 최대
- 2분기(4~6월) 철광석 스폿 수입 가격 전분기 대비 21.5% 급등
* 3분기 장기계약분에 반영 전망

* 9월부터 스폿 수입 가격 하락과 3분기 계약가격 상승 상쇄. 고로 원가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3. 포스코 중국 등 가격 상승반영
- 포스코 가격조정 : 열연 실수요 2만원 인상, 유통은 1.5만원 인하(8월 4주~9월 1주차)

→ 열연 실수요향 공급 가격이 유통향에 비해 낮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포스코 열연부문 수익성 하락한 가운데 유통은 중국의 오퍼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았음.

◆ 철강재 : 중국산 오퍼가 약세 지속, 국내 시장도 전반적으로 약세 열연 일부 오퍼 'Skip' 등 국면 전환 움직임

1. 열연
- 오퍼 가격 : 본계강철 8월 5주차 오퍼 'skip'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란 의견이 있음)
- 본계 외 일조강철 485달러/안산강철 490달러/당산강철 495달러
- 한국 내수 : 포스코는 8월 5주차~9월1주차 수입대응재 열연은 1.5만원 인하. 공급기준 가격 64.5만원 (판매점 판매價 68~69만원. 가격인하 여력은 없음. 다만 수요부진이 계속된 상황. 판매점들의 매출압박으로 저가 판매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2. 철근 : 약세의견, 방향성 불투명
- 오퍼 가격 : 사강 10mm 510달러/용강 510달러→최종협의 각각 492달러/485달러
- 한국 내수 : 국산 66.5~67만원/일본산 64~64.5만원/중국 및 대만산 62.5~63만원

→ 평가 : 중국 오퍼 가격 약세가 국내 시장에 반영. 9월은 관망, 약보합 분위기로 시작할 것으로 관측

3. 앵글 채널
- 오퍼 가격 : 중국 성차이 기준 앵글 470달러, 채널 475달러
- 한국 내수 : 국산 76~77만원/수입산 앵글 63~64만원, 채널 65~66만원

4. 형강 내수 가격 : 현대제철 9월 마감가격과 온도차
- 한국 내수 : 국산 81~82만원 (현대제철 9월 83만원 마감가격 제시)
- 수입 유통가 : 포스코베트남산 79~80만원, 베레인 및 일본산 77~78만원, 중국산 74~75만원

→ 봉형강 평가 : 수입산 철근약세, 일반형강 국내 및 수입산 약보합, 앞으로 중국의 철강재 오퍼 및 고철 가격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관측

◆ 중국 업황 분석 : 하락 지속 저점 도달 의견, 재고 감소 속 마진 회복을 위한 감산 움직임

1. 8월 30일 내수 가격
- 상해 기준 열연 3700위안, 철근 3600위안
- 8월 한 달 하락폭(7월말 대비) : 열연 190위안(27달러), 철근 48달러 급락

→ 철근 가격은 열연보다 100위안 낮음. 중국 시장은 통상 철강 업황 부진 국면에서는 철근이 낮게 형성됨. 철근은 8월 첫 주까지 열연보다 높았지만 이후 열연보다 낮은 수준으로 격차가 확대

→ 중국 정부의 인프라 활성화 정책은 그 효력이 반감되고 있다는 평가. 부동산 투기 규제 움직임으로 8월부터 시장은 위축된 추세로 진행 중.

※ 저점 의견 제기
- 중국 철강사들의 마진은 바닥 수준임. 가격인상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정부의 감산 명령과 별개로 개별적인 감산이 이뤄지고 있음.
* 6~8월 조강생산량 감소는 이를 반증하고 있음.
- 유통재고는 8월 중순 이후 3주 연속 감소하고 있음.
- 9월 수요는 7,8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판단. 더불어 중국의 감산은 수급균형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 현재 내수 가격은 수출 대비 높은 상황이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세는 반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옴
- 중국의 30일 기준 내수 가격은 28일을 저점으로 2일 연속 상승함.

2. 중국 현지 오퍼 가격 FOB(천진항) 기준
  - 열연 500달러 철근 485달러
  - 8월 한 달 하락폭 : 열연 20달러, 철근 20달러

3. 아시아 수입 가격 CFR 기준
  - 열연 평균 475달러, 철근 463달러
  - 8월 한 달 하락폭 : 열연 42달러, 철근 25달러

※ LME 비철금속 주요뉴스

미중 무역 갈등 다소 완화

8월29일 기준, 아시아 시장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 불확실성 및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 관련하여 유화적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유럽 및 미국 증시는 상승 연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급의 무역협상이 예정되어 있다고 발언하면서 추후 들려오는 소식에 주목해야 할 것임.

또한, 주말에 발표될 중국의 제조업 PMI 지표 결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시황

금일 전기동(Copper)은 보합세를 연출하는 하루.

장 초반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Copper 가격은 쉽사리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 연출. 하지만, 미국과 중국에서 들려온 긍정적인 소식이 가격에 영향을 주며 Copper는 한때 3M $5,754까지 상승함.

그러나 계속된 무역전쟁 우려감이 경기 둔화에 영향을 줌에 따라 상승에 제한을 두며 3M $5,700을 지키며 장을 마감.

니켈(Nickel)의 경우는 파푸아 뉴기니 소재의 MCC가 운영하는 Nickel 플랜트가 폐기물 유출에 따라 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Nickel 가격은 상승폭을 넓히는 하루.

Gold(금) 가격은 미국에서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유화적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하락 연출.

양국 간의 무역협상이 이어지고 긴장감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약 0.8% 가량 하락.

Market News

파푸아 뉴기니, 폐기물 유출 MCC社 니켈플랜트 폐쇄 가능성 (Reuters)
현지 당국에 따르면, 중국 Minmetals社의 子회사인 MCC社(Metallurgical Corp of China)가 운영하는 파푸아 뉴기니 소재 Ramu 니켈 플랜트가 폐기물 유출에 따른 보상청구에 직면함은 물론 공장폐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혀.
참고로, 이 플랜트는 약 135km 떨어진 Kurumkukari 니켈/코발트 광산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반된 원광으로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니켈 중간재를 생산함.

銀 가격, 이번 주 온스당 $18선 안착에 이어 재작년 4月 이후 최고치 (Reuters)
이번 주 들어 국제 銀 가격이 온스당 $18선에 안착한 데 이어, 오늘 현물가격 기준으로 장중 한때 $18.64에 거래되는 등 2017年 4月 이후 최고치를 기록. ING社 분석에 따르면, 金/銀 가격비율(gold-silver ratio)을 감안할 때 銀 가격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Jiangxi Copper社 2019年 상반기 순익 소폭 증가 (Reuters)
회사 발표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기동 생산업체 중 한 곳인 Jiangxi Copper社의 2019年 상반기 순익이 생산량 증가가 가격 하락을 상쇄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同 기간 전기동 캐소드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749,300톤으로 집계됐으며, 銅鑛 및 金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2% 증가하고 0.2% 감소한 102,000톤과 12.88톤.

LME 비철금속 (3M)

	일일 가격동향				가격 변동			
	시가(O)	고가(H)	저가(L)	종가(C)	1D Chg	1D %	1W %	1M %
Copper	5,696.00	5,754.50	5,667.50	5,706.50	4	0.07	-0.39	-3.93
Aluminum	1,749.50	1,755.50	1,734.00	1,754.00	5	0.29	-1.38	-2.50
Zinc	2,267.50	2,288.00	2,252.00	2,255.50	-11	-0.49	-1.29	-7.50
Lead	2,063.50	2,075.00	2,039.00	2,054.00	-12	-0.58	-1.04	1.91
Nickel	16,265.00	16,605.00	16,010.00	16,410.00	115	0.71	4.06	12.74
Tin	15,780.00	15,945.00	15,720.00	15,780.00	0	0	-2.62	-8.94

자료: Reuters, LME,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

LBMA 귀금속 (SPOT)

	일일 가격동향				가격 변동			
	시가(O)	고가(H)	저가(L)	종가(C)	1D Chg	1D %	1W %	1M %
Gold	1,527.20	1,528.20	1,526.60	1,527.86	0.46	0.03	-0.71	1.80
Silver	18.25	18.26	18.24	18.24	0.01	0.05	-0.49	6.67
Platinum	915.25	917.20	916.25	918.09	1.09	0.12	9.84	6.51
Palladium	1,473.02	1,474.76	1,475.50	1,477.50	4.49	0.30	0.58	4.42

자료: Reuters, LME,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

LME 비철금속 OFFCIAL Prices

	금일				금월평균	
	CASH (현물)		3M (3개월)		CASH	3M
	BID	ASK	BID	ASK		
Copper	5,721.00	5,722.00	5,737.50	5,738.50	5,709.48	5,735.68
Aluminum	1,713.00	1,713.50	1,742.00	1,742.50	1,742.35	1,772.60
Zinc	2,284.00	2,285.00	2,274.00	2,275.00	2,276.60	2,280.38
Lead	2,060.50	2,061.50	2,063.50	2,064.00	2,043.40	2,041.55
Nickel	16,340.00	16,345.00	16,225.00	16,275.00	15,573.25	15,560.75
Tin	15,705.00	15,710.00	15,750.00	15,760.00	16,616.00	16,602.75

자료: Reuters,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동부제철 KG동부제철로 9월2일부 출범

1) **임원 11명 교체 : 동부제철 당진부공장장 박종관(1968년생) 포함 3명 제외**
   - 교체 임원 나이는 47세에서 50대 초반까지 젊은 인력으로 세대교체
2) **KG그룹-캑터스PE 8월30일 3600억원 신주인수대금 납입 완료**
   - 채권금융기관 6050억원 동부제철 채권 출자전환
   - KG스틸 지분 40% 최대주주, 캑터스PE 32% 2대주주, 채권금융기관 27%
   - KG동부제철 부채비율 170%로 하락, 부채규모 2분기 말 2.6조원에서 1.9조원으로 감소
   - 순차입금 2분기 말 1.7조원에서 0.6조원으로 축소
3) **9월2일 서울 중구 KG타워 공식 출범식**
   - 곽재선 KG그룹 회장 취임식 겸 신임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안 & 신규 투자 등 중장기계획 발표

***. 이세철 사장 대표이사 선임**

- 1957년 7월생,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출신
- 1987.04~1992.03 대우아메리카 LA 철강담당 주재원
- 94년~97년 철강사업개발팀장, 중국해우석판(동양석판 공동)
- 베트남 강관공장(세아제강 공동), 베트남제철소 프로젝트(포스코 공동) 등 주관
- 2000년~2004년 대우호주법인장 겸 대우인터내셔널 호주지사장
- 2010~2012 대우인터내셔널 말레이시아 법인장
- 2012~2018 넥스틸 부사장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1) 업계 뉴스

- 철강업계 임원 평균 56세…영흥 동국 'Young'한 기업
- 철강協 강관협의회, 기술인력 양성 지원
- 동남아 철강 시황, 인도산 영향 '부정적'
- 일본제철, 설비투자 축소 고로개수 연기
- 상하이 선물시장, 철강선물價 바닥탈출 '신호'…한국향 수출價 반등 의견제기
- 8.18. 美 상무부 한국産 연벽사각파이프(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 반덤핑 일몰재심 조치 유지 판정
- US Steel, A. Mittel 등 미국 철강사, 시황 악화로 인력 임시해고 단행
- 건설/인프라 등 인도 철강수요 증가, 수출입 격차 확대로 2년 연속 순수입국 유지 가능
- 인도 Jindal그룹의 JSW Steel USA, 텍사스 EAF 건설 보류
- 일본, 7월 철강수출 1.0% 증가 및 철강수입 2.5% 증가
- 베트남 호아팟 고로건설 프로젝트 2단계 추진
- 현진소재, 120억원 전환사채 발행 결정
- SK·포스코 수뇌부 회동…이차전지 소재 분야 협력 주목

2) 수요/연관 뉴스

- 일본 자동차 8사, 7월 세계 생산 1% 증가
- 넥센타이어, 체코 공장 준공...글로벌 거점 마련
- 조선업 노동자 상경 총파업,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재벌개혁 이뤄내라" 촉구
-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착공, 2021년 배터리 모듈 등 연간 10만대 분의 배터리 전기차(BEV) 부품 생산
- 베트남 자동차 부품시장, 한국이 日 제치고 1위 등극
- 日 올 조선해양 구조물용 강재 수요 322만톤, 전년비 3.5%↓
- GS건설, 해외공사 수주잔고 급락…1년 치 일감보다 낮아
- 현대삼호중공업, 4천억 규모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3척 LPG(액화석유가스)운반선 2척 수주
- 르노삼성, 부산공장 400여명 구조조정…쌍용·한국GM도 비상경영
- 한국GM 쉐보레, 수입차협회 회원사 승인..'수입차'로 변신

3) 경제/산업 뉴스

- 30일 환율 마감 : 원/달러 1211.2원 (전일 대비 ↓5.2원), 원/100엔 1138.99원(↓9.75원)
- 7월 산업생산 1.2%↑·투자 2.1%↑…소비 2개월 연속 감소
- 조선업 포함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종사자 48개월 만에 증가세...전년 대비 1204명 늘어나

● 산업부 기계산업 핵심기술개발 등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 2배 증액
● 국민연금 올해 상반기 운용수익률 7.19%…해외투자 호조
● 하반기 업종별 신입 채용전망…정보통신·자동차 '웃고' 기계·중공업 '울고'
● 법원 "현대차, 수출선적 업무 하청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
● 주요 경제지표 (8. 16. 17시30분 현재, 자료 : 기획재정부)

[환율]	'17말	'18말	'19.7말	8.28	8.29	8.3	전일비	18말비
₩/U$	1,070.50	1,115.70	1,183.10	1,213.90	1,216.40	1,211.20	△0.43	8.56
선물환(NDF,1월물)	1,070.00	1,114.90	1,181.80	1,213.10	1,215.50	1,210.50	△0.41	8.57
₩/CNY	163.9	162.79	171.8	169.49	169.89	169.65	△0.14	4.21
₩/Y100	949.28	1,008.86	1,090.21	1,147.57	1,148.74	1,138.99	△0.85	12.9
Y/U$	112.77	110.59	108.52	105.78	105.89	106.34	0.42	△3.84
U$/EUR	1.1927	1.1455	1.1157	1.1086	1.108	1.1035	△0.41	△3.67
CNY/U$	6.5426	6.8522	6.8859	7.161	7.1637	7.1539	△0.14	4.4

* '18년 평균 환율: (₩/U$) 1100.6원, (₩/￥100) 992.6원
* '19년 평균 환율('19.1.1~현재): (₩/U$) 1159.0원, (₩/￥100) 1061.8원, 3시 30분 기준

[유가]	'17말	'18말	'19.7말	8.27	8.28	8.29	전일비	18말비
Dubai ($/배럴)	64.33	52.86	64.57	58.07	58.99	59.32	0.56%	12.22%
WTI 선물 ($/배럴)	60.42	45.33	58.58	54.93	55.78	56.71	1.67%	25.10%

* '18년 평균 유가: (Dubai) 69.66$, (WTI 선물) 64.89$
* '19년 평균 유가('19.1.1~현재) (Dubai): 64.48$, (WTI 선물): 57.11$

[주가]	'17말	'18말	'19.7말	8.28	8.29	8.3	전일비	18말비
KOSPI	2,467.49	2,041.04	2,024.55	1,941.09	1,933.41	1,967.79	1.78%	△3.59%
거래대금 (억원, 일평균)	42,744	41,207	38,774	50,374	32,887	37,095	12.80%	-
KOSDAQ	798.42	675.65	630.18	602.9	599.57	610.55	1.83%	△9.64%
외국인순매수 (억원)	1,409	2,730	△212	89	△2,318	2,528	△209	-

* 기간중: '17말('17.1.1~12.31), '18말('18.1.1~12.31)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5. 금주의 자료

1) 사람이 혁신의 원천이다 - 사람 기반 혁신의 5가지 방식 (출처 : 포스코경영연구원, 19. 8. 14)

- 한국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진입했다. 고도성장기의 Fast Follower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은 현 상황 극복과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사람을 통한 혁신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혁신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바로가기 : file:///C:/Users/win10/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LBTSZAE4/'사람'이%20혁신의%20원천이다%20-%20사람%20기반%20혁신의%205가지%20방식%20-.pdf

2) 홍콩 시위 장기화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 (출처 : 한국무역협회 연구보고서, 19. 8. 27)

- 최근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는 중국 정부의 홍콩 자치권 침해에 대한 홍콩 시민의 뿌리 깊은 불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따라서 홍보-본토 간 갈등이 쉽사리 종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장기화될 경우, 우리 수출 기업의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홍콩은 우리나라의 4위 수출 시장으로 지난해 460억달러에 달하였고 이중 82.6%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위 장기화에 딸 홍콩-보노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여타국에 비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 바로가기 : file:///C:/Users/win10/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B4PUO3QV/TB12.%20홍콩%20시위%20장기화에%20따른%20우리%20수출%20영향.pdf

3)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19.8.27)

- 민간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금융위기 수준까지 추락한 가운데, 민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 한국이 잠재성장률이 극도로 저하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

-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잠재성장률이 1% 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파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 바로가기 : http://www.korcham.net/new_pdf/target/보고서_SGI_최근%20민간투자%20부진의%20배경과%20영향(최종).pdf

6. 철강과 인문학(6) : 철의 제국 '히타이트'…신(神)의 소재에서 인간(人間)의 철(鐵)로

태양풍을 막아 생존의 조건을 만들어준 철을 인류가 소재로 사용하게 되면서 생활의 변화는 물론 문명의 본격적인 발달과 사회구조까지 변화, 발전시키게 된다.

그렇다면 인류와 철의 조우(遭遇) 이후 본격적인 철기시대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시작한 것일까?

때는 기원전 2천년 경,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북단의 터키 아나톨리아 지역의 히타이트 인들이 그 주인공이었다.

종전 학자들은 기원전 1500년 전후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서 철이 처음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러시아 남부의 조지아, 아르메니아 공화국에서 초기 제련시설이 40여 곳 발견된 탓이다.

그러나 2005년 고고학계는 터키 아나톨리아 지방의 카만칼레호육 유적에서 작은 철 조각을 발굴한다. 길이 5㎝로 철제 단검 일부였다. 제작 시기는 기원전 2100~1950년으로 추정했다. 중요한 것은 운철이 아니라 철광석을 제련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성분 분석 결과였다. 발굴지 주변에서 제련 후 남은 철 찌꺼기도 출토돼 이곳이 인류 최초의 철 제련지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인류의 철 생산 시기가 약 500~600년경 당겨졌다. 아나톨리아는 원래 청동기 생산이 처음 이뤄진 곳이기도 했다. 금속 제련 기술이 가장 앞선 지역이라 철기 최초 생산의 신뢰성을 높여줬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및 이집트의 국가들은 청동기를 사용했는데, 오직 히타이트만이 용광로를 이용해 철을 제련했다. 이 철제무기를 바탕으로 히타이트는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했다. 이집트 등에서도 극히 소량이지만 철기가 사용된 흔적이 있으나, 운철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철광석을 제련하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용광로에서 철을 녹일 정도로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산소를 공급할 풀무가 필요한데 당시 히타이트에는 풀무가 없었다. 때문에 히타이트 문명은 풀무의 역할을 자연의 바람으로 대체했다. 특정한 시기에 수도인 하투샤 부근의 황야에 맹렬한 바람이 불어온다. 히타이트인은 이 시기에 황야에 용광로를 설치하고 맹렬한 황야의 바람을 풀무 대신으로 용광로가 철을 녹일 수 있는 높은 온도를 가까스로 얻어냈다.

이런 이유로 히타이트는 멸망하는 날까지 하투샤를 버릴 수 없었고 바람의 신이 최고신이었다. 당시 히타이트 문명에서는 '철기 자체가 초자연적인 신성한 재료'로 대우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히타이트인은 원래 흑해 북쪽 지방에서 살았다. 기원전 1700년경 아나톨리아 지방으로 내려와 정착했다. 정착 초기 만해도 히타이트는 하투샤(보가즈쾨이) 중심의 작은 도시국가였다.

당대 서아시아 문명의 중심은 메소포타미아였다. 수메르 문명이 멸망하고 300년 정도 지난 후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패권을 차지했다. 히타이트의 전성기는 바로 그 다음이었다. 히타이트는 바빌로니아를 물리치고 서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한다.

물론 그 바탕에는 메소포타미아 인들이 모르는 자신들만의 무기, 바로 철 생산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대에 히타이트를 '철의 제국'으로 부르는 까닭이다. 그러나 단순히 철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철의 제국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히타이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철을 생산했다. 그러나 히타이트에 비해 제련 기술 수준이 떨어졌다. 불순물이 많으면 철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 철로 만든 철기는 품질이 나쁠 수밖에 없다. 히타이트가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히타이트의 철 생산 기술이 주변을 압도했던 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히타이트 역시 처음부터 철을 대량 생산할 수는 없었다. 철의 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았다. 하투샤에서 발굴된 점토판(문자)에 따르면 철은 금보다 5배, 은보다는 40배나 비쌌다고 한다. 히타이트 인들은 기술을 발전시켜 철 생산량을 꾸준히 늘렸고 철의 지위는 떨어졌다.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이 철의 혜택을 입게 된다. 신의 소재(素材)로 불릴 만큼 귀한 금속 철이 드디어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이다.